

#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현 승 환\*

〈차 례〉

1. 서론
2. 설화 속의 지관에 대한 전승민의 인식
3. 설화 속의 풍수의 영향
4. 설화 속의 세계 인식
5. 결론

## 1. 서론

풍수지리는 어느 시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의 고유 사상으로 지배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논자에 따라서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말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데,<sup>1)</sup>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 환웅이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를 열었다는 것에서 풍수적 사유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역사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풍수적 사유는 탈해신화에서도 나타난다. 용성국에서 온 탈해가 살 만한 곳을 찾다가 지세를 보고 결정을 내린 것이나 고구려, 백제의 고분벽화에 서 보이는 사신도에서도 풍수적 사유를 엿볼 수 있다.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교수

1) 이회덕, "풍수지리", 「한국사상의 원천」, 박영사, 1976. p.182.

이러한 풍수설이 확고한 체계를 갖춘 것은 신라 말의 도선으로부터 비롯된다. 도선은 당시 유행하던 풍수설을 집대성하고, 고려 태조 왕건의 고려건국을 예언한다. 왕건은 이를 받들어 심훈요를 지어 그의 사상을 정리하게 된다. 조선조에는 풍수설에 대한 지식을 기본적인 것으로 하여 「경국대전」 음양과에서는 풍수서가 시험과목이 될 정도였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갖는 풍수지리는 사람이 살다가 죽은 집과 묘에 적용되어 양택과 음택으로써 꾸준히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이다.

양택풍수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도읍을 정하는 것인데<sup>2)</sup> 제주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주택에 관한 설화가 몇 편 보이는데 상당량이 음택풍수에 관한 설화이다. 이것은 제주민의 관심사가 양택보다 음택에 두어졌음을 의미하는데 이 글에서는 그러한 연유를 민속학적 방법을 통해 해석해 보려 한다.

그러기 위해 풍수와 장례풍습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제주민들이 풍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이 향유하는 설화를 통해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두어진다.

윤치부<sup>3)</sup>의 조사에 따르면, 양택풍수사상보다는 양기풍수사상과 관련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자료로는 제주설화집성(1)에 6편, 제주도전설지에 2편, 제주도전설에 2편, 남국의 민담에 2편, 한국구비문학대계9-2에 1편, 한국구비문학대계9-3에 2편 총 15편이 보인다. 이들은 서로 명확하게 양기풍수와 양택풍수가 구분되지 않고 양기풍수사상의 모습으로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창조<sup>4)</sup>는 이 둘을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해야 한다고 하고, 양택풍수는 주거건조물, 양기풍수는 취락입지를 지칭하는 것이라 하였다. 村山智順도宅은 주로 용어의 관습상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을 가리키고, 基는 그宅을 포용하는 대지를 칭한다고 하며, 생기에 감응받는다 것은 건축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시하는 땅의 생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니 陽基가 맞다고 보았다. 즉 주택을 선정하는데 묘지 선정과 같이 땅의 생기를 중시하면 양기풍수이고, 선정된 대지 위에 들어선 건물의 방위와 배치에 관계된 요소들이 중심이 되면 양택풍수사상이 된다.

2) 한양이 도읍으로 정해지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풍수승 도선의 비기에 의하면 한양은 이씨의 왕도라 예언한 바 있고, 이태조가 건국을 하자 풍수승 무학의 주장에 따라 한양을 왕도로 정하고 500년의 번영을 누렸다. 배도식, “풍수민속고”, 「청천강용권박사 송수기념논총」, 동간행위원회, 1986, pp.92-93참조.

3) 윤치부, “제주설화에 나타난 풍수사상”, 「택재신용준박사화갑기념논총」, 동간행위원회, 1989, pp.103-124.

4)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6, p.252.

##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음택풍수설화로선 앞의 윤치부의 조사에서 제주설화집성에 35편, 제주도전설지에 28편, 제주도전설에 18편, 남국의 전설에 4편, 남국의 민담에 8편, 한국구비문학대계9-1에 4편, 한국구비문학대계9-2에 9편, 한국구비문학대계9-3에 15편, 학술조사보고서 제7집에 3편, 학술조사보고서 제8집에 6편, 국문학보 제7집에 1편, 백록어문 5에 3편 총 134편이 수집되어 있다. 그 외로 각 마을지에도 있지만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음택풍수 설화는 사람이 죽고 지관이 풍수지리 원리에 따라 명당을 고르는 과정과 그 결과에 얽힌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람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표현이 풍수설화를 통해 나타난 양상을 검토한다. 먼저 명당을 원하는 상주들에게 지관이 차지하는 위치를 검토하고, 상주들에게 인식된 명당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전승민들의 풍수설화에 대한 수용의식을 찾게 된다.

명당은 지관과 명당을 고르는 자 사이에서 풍수지리 원리에 따라 선정된다. 이때 명당을 고르는 자 곧 제주인들은 지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설화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공동작이기에 그 작품을 통해 작자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오랜 세월 전승되면서 공감되는 사실만 살아남는다는 설화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작업은 전승의식을 찾는 기초가 된다.

## 2. 설화 속의 지관에 대한 전승민의 인식

풍수는 藏風得水에서 온 말이다. 즉 생기는 바람에 흩어지기 쉬운 것이므로 바람으로부터 감추어야 하고, 물을 얻어야만 더욱 왕성하게 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장풍은 지상에서 바람을 막는 방풍의 의미가 아니라 불려서 흩어지고 사라져 가는 바람을 끌어들이, 바람 속에 생기를 간수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면서 물을 얻음에 주안점이 두어지는 것으로 보아 풍수지리는 물의 흐름을 중시하는 것이다.<sup>5)</sup> 이는 물의 역할이 마치 인체의 혈액 같아서 모든 생기를 공급하는

---

5) 郭璞의「藏書」에 의하면, 생기는 바람에 실리어 흩어지고, 물에 닿으면 머무는 까닭에 바람과 물, 즉 풍수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풍수의 방법은 물을 얻음이 첫째요, 바람을 막음이 그 다음이다(經曰 氣乘風則散 界水則止 故謂之風水 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p.75.

통로로 설명하고 있고, 음양오행설을 원용하여 산을 음으로 보고, 물을 양으로 본다. 따라서 동쪽인 청룡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양수가 되고, 백호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음수가 된다. 「地理新法」에서도 물은 산의 높은 곳에서 흘러 낮은 곳으로 가는데 길한 방향에서 출발하여 흉한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좋다고 했다.<sup>6)</sup> 이는 복록을 실어와서 묘지 주변에 남겨두고, 흉액을 실어가 버려야 좋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묘지 주변에 생기를 포함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득이라 하고, 흉기를 실어 묘지의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파라 하며, 이 생기가 묘에 영향을 미쳐 감응을 받게 되고, 흉기가 묘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가장 이상적인 형국이라 하겠다.

장풍의 역할은 산의 내맥인 용절이 하게 되는데, 점혈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로 나타나며 묘지는 이것들의 호위 속에서 보호받게 된다. 이러한 곳을 찾아내는 지관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실제 설화를 통해 지관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자.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지관에 대한 공경심이다.

고전적<sup>7)</sup>의 부친이 돌아가자 토룡하고 장사를 치르지 않았다. 형은 동생이 지관이라 하여 그에게 미루고, 동생은 형이 있으니 하고 구산을 미루었다. 1년이 지나자 형수는 아무리 동생이라도 지관이니 부탁을 하라고 하여 구산을 하였다. 하지만 고전적이 본 묘자리는 땅이 꺼져 있었다. 고전적은 자신의 상복을 벗어 그 꺼진 곳에 놓아 그 위에 관을 넣은 다음 다시 상복을 덮고 장사를 치렀다. 그 땅은 꺼져야만 되는 땅이었다. 즉 그 묘자리는 여자의 하문이 되는 자리였다. 그 덕으로 고전적은 서자이지만 전적 벼슬을 할 수 있었다.<sup>8)</sup>

고전적은 제일가는 지관이지만 부탁을 받지 않고서는 함부로 나서서 묘자리를 보지 않는다. 형이지만 자신에게 부탁을 해야 묘자리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관의 위치가 일반인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로 이 설화가 제시

6) 胡舜申의 「地理新法」 “水論”에 산은 靜物로 음에 속하고 水는 동물로 양에 속한다. 그런데 음은 體常을 道로 하고, 양은 변화를 주로 하기 때문에 길흉화복은 水에 더 잘 나타난다(山靜物而屬陰 水動物而屬陽 陰道體常 陽主變化 故吉凶禍福 見於水者尤甚.).

대개 산은 사람의 형체와 같고, 수는 사람의 혈맥과 같은 것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형체의 生長枯榮은 모두 혈맥으로 비롯된 것이다. 인체의 건강 여부가 혈맥에 의존되듯이 산수도 이와같이 수와 산이 합쳐지지 않으면 산의 길함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풍수에 있어서 수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최창조, 위의 책, pp.115-116).

7) 본명은 高泓進. 조선 영조 때 인물로 의술의 진국태, 점술의 문영후와 더불어 당시의 3명인으로 일컬어지던 지관임.

8)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pp.236-239.

##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하고 있는 점은 부친의 묘를 쓰고 난 후 그 영향은 서자라 하더라도 자식에게 미치고 있다. 서자이지만 전적 벼슬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즉 그 영향이 2대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또한 땅을 여성으로 나타낸다. 땅은 생산의 대상이라는 사고로 여성의 생산성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농경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티브이다.

지관에게 공손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예는 다른 예에서도 보인다.

홍씨 양반 집에서 장사가 났는데 맏아들이 “여보, 고 아무가이. 우리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와서 산 한자리 봐 주시오”라고 거만하게 명당자리를 요청했다. 고전적은 “쫓같은 자식, 뭐 내가 아무리 쌍놈이지마는 네 애비를 좋은 명당을 보려면 나한테 와서, 절도 한 번 하고 ‘집으로 좀 오십시오’라고 좋은 말씀을 하여야 하지. 건방진 자식” 하며 거절을 하였다. 둘째 아들이 와도 건방지다면서 거절을 한다. 셋째 아들은 “우리 형님네 하는 게 도저히 안 됐다.”고 한 후, 좋은 음식을 준비하여 가서 절을 한 후, “선생님, 와서 저희 아버지 명당 한 자리 봐 주십시오.”라고 한 후 모셔갔다. 그들은 이미 고내봉에 땅을 봐 두었는데 봉황새 형이었지만 그 혈맥이 머리에 있는지 꼬리에 있는지를 몰라 고전적에게 “채는 봉황새채다. 봉황새채데 혈이 어디 있수?”라고 묻지만 말을 해 주지 않았다. 하관 시간이 가까워 가니 삼형제는 고전적에게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자 그제야 산터를 봐 주었다.<sup>9)</sup>

전승자가 이 말을 하면서 “제주도 사람이 고전적에게 다 굴복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상의 묘지를 정하는 문제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즉 고전적 신분이 상놈이라 하여도 또한 아무리 건방지게 굴어도 조상의 묘를 선정하는 지관이기에 무릎을 꿇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는 무당에 대해 신분상으로는 천하다 하면서도 정작 필요로 할 때는 공손히 모심과 동일한 것이다.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관이나 무당을 공손히 모시는 것은 그들이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제자는 신앙민의 뜻을 신에게 고하고, 신의 뜻을 신앙민에게 전해 주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다음의 설화는 그 역할이 분명히 드러난다.

부친이 죽자 토롱을 한 후, 형제가 서로 미루어 장례를 기다렸다. 형수가 아무리 동생이라도 명지관인데 부탁을 해야 한다고 하여 부탁을 했다. 동생은 지관들이

9) 김영돈 외, “고전적 Ⅲ”, 『제주설화집성(Ⅰ)』,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pp.383-386.

타는 말 안장에 명주 바지 저고리를 입혀야 한다고 했다. 형은 화가 나서 아무데나 가서 감장을 해도 동생은 빌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형수는 남편을 달래어 동생의 요구대로 하자고 했다. 형은 동생의 요구대로 해 주고 극진히 모셨다. 구좌면 지경에 가서 자리를 골랐다. 형이 정혈 방위를 정하라고 하니, 동생은 그 값으로 천냥을 내 놓으라 하다. 형은 동생도 아들인데 아버지 묘를 구산하면서 돈을 받으려느냐며 포기하려 하는데, 형수는 발문서를 주며 동생의 요구대로 하라고 하였다. 동생은 문서를 받고, 주판관을 현관으로 삼고, 소를 잡아 비단 폐백을 갖춰 산제를 지내야 한다고 하였다. 형은 다시 돈을 써 주판관을 모셔 토신제를 지냈다. 장사가 끝나자 형이 산소를 지켜야 한다며 혼자만 남겨두고 내려와 버렸다. 그날 밤 형의 꿈에 백발 노인들이 나타났는데 자신들의 놀이터를 토지관놈이 천냥을 받아 팔아먹고 장사를 지내게 했다며 불평하는 꿈을 꾸었다. 이 말을 들은 동생은 재산 문서함을 형에게 내 놓고 자손이 만 명은 될 것이라 하였다. 형이 죽고, 장손이 죽자 80세 노인이 된 김지관이라도 곡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지관은 장손을 하관하고 난 후는 춤을 추며 노래까지 했다. 그 이유를 묻자, 손자 곧 장손이 명당터에 묻히려고 일찍 죽은 것이니 다행이며, 이 터는 소가 밟아도 자손 3천명이 될 곳이라 하였다.<sup>10)</sup>

이 설화에서 보이는 것은 앞의 고전적의 예에서처럼 지관에 대한 공경심이 하나요, 다른 하나는 명당터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셋째로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자손에게 그 영향이 이어짐으로써 조상과 자손이 관계지워진다는 것이다.

이는 풍수지리에서 나타나는 산맥의 흐름이 조상과 자손으로 이어지는 혈맥의 흐름과 연관되어 생사의 문제를 풍수관념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풍수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좋은 명당 자리에 묻히면 양질의 인을 발생하게 되고, 이 인의 입자는 자기의 후손에게 전수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입자가 어찌해서 자기 후손에게만 전달되는가가 문제이다. 잘 알다시피 우주 공간에는 많은 입자들이 선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전파와 같은 것이어서, 전파는 주파수가 맞아야 수신이 되듯이, 동질의 인이 동질의 인을 소유하고 있는 자손의 육체에 흡수되기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부조의 시신이 흡수한 생기를 자손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수혈의 원리와

10)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pp.247-257.

도 같은 것이어서 혈액형이 같은 사람끼리만 수혈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조상이 그의 자손에게만 동질의 인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인의 힘, 즉 생기에 의하여 자손은 발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sup>11)</sup>

地家書의 으뜸인 「靑鳥經」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하늘과 땅에서 잠시 빌었던 형체인 육체가 혼백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혼은 정신적인 것이어서 하늘로 돌아가고, 백은 육신과 같은 것이어서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했다. 땅으로 되돌아간 살과 뼈가 생기를 만나 자손에게 길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를 길기감응 혹은 친자 감응이라 한다. 이러한 발복은 자손의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음덕이 자손대대로 전승되어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처럼 조상과 자손과를 연결시켜 주는 지관은 정혈을 찾아가는 동안은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심방은 쟈상을 배설하여 제물을 올리고 노래와 춤으로써 신령을 청해 들어 쟈상에 앉힌 후, 제물을 잠수도록 권하여 소원을 빌고 신의 의사를 탐지하고, 마지막에 신령을 돌려 보내는 의례에서 신령과 인간의 의사를 중개하고 있다.<sup>12)</sup> 신령에게 기원할 때는 기원자가 정성을 다하여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대접하는데 이때 사제자인 심방이 그 제물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신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신이 만족하면 기원하는 바는 신이 잘 수용하여 소원이 이루어진다.

지관은 신과 신앙민 사이에서 어떤 방법으로 의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가.

명당터를 잡는데 김귀천지관은 형에게 구산의 값으로 천냥을 내 놓으라고 한다. 정혈을 정하는데 천냥을 지관에게 지불함은 곧 토지신에게 지불하는 의미를 지닌다. 백발노인이 와서 불평을 하는 대목에서 '토지관 놈이 돈 천냥을 받아 풀아 먹었으니 법이 웃어 못 홉네다. 우리 자릴 옮김주.'라고 하며 3신선이 밤마다 내려와 놀던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간다. 이는 지관이 토지신을 대신하여 그 값을 받은 것이며 지관이 바로 사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토지를 관할하는 것은 토지신이고, 그 토지신의 뜻은 지관을 통해 일반인 곧 신앙민에게 전달되며, 신앙민의 희망은 지관을 통해 토지신에게 전달되어 명당을 선정받게 되는 것이다.

11) 배도식, "풍수민속고", 「청천 강용권박사 송수기념논총」, 1986, p.99.

12)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p.48

동생인 지관은 형에게서 3신선이 노는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자리로 옮겼다는 꿈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사제로서의 역할보다 인간으로서의 역할로 돌아와 있다. 그래서 냉정하게 정혈에 대한 대가로 받아냈던 천냥, 발문서 등을 다시 형에게 돌려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린다. 이것 역시 구산을 하는 동안 자신은 형의 동생으로 망인의 아들이라는 위치보다는 사제자로서의 지관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관에 대한 대접이 소홀하지 말아야 하는 오좌수 설화에 따르면,

“외조카가 통물 오좌수에게, 삼촌님 나도 묘자릴 하나 줘서. 통물 오좌수가 조금 과격해서, 「묘를 얻으려면 공이 얼마 들고 적선을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이냐. 함부로 농담 비슷이 내게 와서 묘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묘를 얻는데는 사제자인 지관에게 공을 들이고, 적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조상을 좋은 데로 모시고 그 덕을 입게 된다.

하지만 지관도 그 역할을 하는데 신의 뜻을 어기면 벌 받는다.

오씨택에서는 육지에서 신안을 모셔 선묘 뒷자리를 정하게 되었다. 상주는 밤에 지관을 위하여 종년을 들여보냈다. 종년은 제혈이 잘 되었는지를 묻자 한 광증 조금 올랐으면 되지만 지금 것도 그만하면 되었다고 한다. 상주는 이 말을 듣고, 다음 날 지관에게 한 광증 올려 잡아달라고 했다. 천기가 누설된 것을 안 지관은 그로 인해 죽게 된다.<sup>13)</sup>

이것은 지관의 제혈 즉 정혈을 찾아 뒷자리의 광증 자리를 정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설화이다. 정혈을 찾는 것은 신의 뜻이므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지켜야 할 자신이 스스로 누설했으니 벌을 받아 죽게 된 것이다. 조만능의 묘를 선정하는데 지관이 첫 번째 선정한 곳은 물이 많다고 자식들이 반대하고, 두 번째 선정한 곳은 흙이 적다고 반대를 했다. 그러나 그 곳들이 명당이었음이 판명난 후는 지관에게 “이번에는 어떤 곳이라도 형님이 말하는 대로 하겠습니까”고 하지만 지관은 “이젠 산신이 노헤여시니 맹산을 세 번 ㄱ르치민 내가 췌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있질 못한다.”고 한다.<sup>14)</sup>

이처럼 명당을 선정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며, 산신, 토지신이 명당을 관할하고

13) 김영돈외, “별도봉 오씨 선묘”, 『제주설화집성(Ⅰ)』,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pp.663-666.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만능의 묘”, 『한국구비문학대계』9-1, 1980, pp.120-131.

있음을 말하고, 그러한 친기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제자로서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3. 설화 속의 풍수의 영향

사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쾌적한 장소에 살기를 바랐던 원초적인 사상에서 출발한 풍수지리는 망인의 영혼이 좋은 장소에서 살기를 바랐던 고대인들의 영생불사 사상에서 완성이 되었다. 민간에서 행해지는 귀향풀이나 시왕맞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저승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나 저승에 간 조상을 불러들여 대접하는 제사의례를 통해 조상과 자손과는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상과 일체감을 공유하는 제사를 통한 신앙의식은 조상을 풍수지리설에 따라 좋은 곳에 모시고 그 영향으로 자손에게 그 발복의 혜택이 미치게 하는 데 있다.

조상의 묘를 잘 써서 자손이 복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

성산면 온평리에 현지관이 살았는데 그는 유명한 신안이었다. 그의 조부의 뒷자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묘가 증손 때 이장한다는 것까지 알아 맞췄다. 또한 성산면 고성에서 유명하다는 정지관과 어떤 집의 뒷자리를 찾으러 가려는데 이웃집에서 온 여인이 무얼 빌러 왔는지를 알아 맞추는 것까지 그의 능력은 뛰어났다. 어느 해인데 체백이 없는 봉분을 별초하는 무리가 있어 그 사실을 알려준 일까지 있다. 현지관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 '개미동산'이라는 곳에 뒷자리를 보고 "내가 죽거든 여기 묻으라. 그리고 5대손이 죽거든 바로 이 곁에 묻도록 전승시키라."고 유언했는데, 그 이유는 자손의 수가 많아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 결과 현지관의 자손들은 개미처럼 번창하였다.<sup>15)</sup>

현지관 전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상의 묘의 영향은 4대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4대까지 그 영향이 소멸되니 다시 5대손을 매장하여 그 영향이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예들은 2-3대에 걸쳐 나타난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부친을 명당에 매장함으로써 자식이나 손자가 그 영향을 받는 것이다.

15) 현용준, "현지관", 앞의 책, pp.244-247.

김지관이 정한 묘자리에 자신을 묻은 결과 그의 자손은 증손에 7형제, 현손에 9형제로 번성하는데 현손에 명도암 선생이 났다고 하거나, 김지관의 형을 문과가 이어 날 기여기오름에 묻은 결과 형의 자손이 먼저 문과 급제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상의 묘자리를 잘 쓴 결과 그 혜택을 자손이 본다는 것은 일반적 사고이지만 조상을 얼마나 공손하게 모시는가 하는 조상숭배 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강한 조상숭배 의식은 매장 장소뿐만 아니라 매장 시간까지 중시한다.

부대각의 부친을 시간을 맞춰 매장하고 돌아오는데 상두꾼들을 양 손에 잡고 계곡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솟았다. 며느리가 몰래 남편을 살피니 거드랑이에 날개가 있음을 알고 인두로 지져버렸다. 이 소문이 나자, 관가에서 부친의 묘를 파 보니 시체가 용이 되어 금방 날려고 하는데 날개가 다 자라지 못하여 용진굴까지밖에 날지 못하고 거기 떨어져서 죽었다.<sup>16)</sup>

이것으로 보아 명당과 하관 시간이 잘 맞아야 됴을 알 수 있고, 부친의 음덕이 자식에게 미치고 있음을 보인다. 이것은 정해진 시간에 매장해야 풍수의 영향이 후손에게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손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도 엄격하게 시간을 중시하는 것이나, 4대라는 기간 동안 조상을 모시는 것도 이러한 시간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관은 명당을 찾아주면서 매장 기한을 정해 두기도 한다. 그 기간 동안에 떠나지 않아 망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부자가 되었다가 3대가 되니 망했다고 한다.<sup>17)</sup>

이로 보면 조상의 영향으로 아들까지는 부자요, 손자대가 되면 떠나라고 했으나 떠나지 않아 그 이후는 망했다고 하겠다. 즉 영향은 조손관계까지임을 보여준다. 다음의 설화는 손자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목사로 왔던 자가 고전적의 재주가 뛰어남을 알고 그를 데리고 자신의 조부의 묘를 보이고 어떠냐고 묻는다. 고전적은 제주목사가 하나 나겠다고 대답하니 목사는 귀신같은 놈이라 여기며 전적 벼슬을 주었다고 한다.<sup>18)</sup>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할아버지를 잘 모신 음택으로 손자에게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손자의 제주목사는 조부의 묘를 잘 썼기 때문이다.

이상의 예에서 보면 4대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음은 분명하다. 현지관 설화의 예에서는 자신을 개미동산에 장사지내고 5대손은 다시 자신의 곁에 장사를 지내

16) 김영돈외, “장사나게 한 명당자리 용진굴”, 앞의 책, pp.975-978.

17) 김영돈외, “어떤 신안”, 위의 책, pp.939-940.

18) 현용준, “고전적”, 앞의 책, pp.230-236.

##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면 자손이 개미처럼 번성할 것이라 하고 있어 영향의 범위를 4대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조상의 영향이 4대까지 미치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4대까지 한다는 것은 자손으로서 조상을 위한 추모의례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때마다 불러오는 조상을 통해 조상의 음덕을 입는다는 관념이 의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조상의 제사날이 되자 묘소에 거주하던 조상이 제사먹으러 찾아온다는 설화<sup>19)</sup>는 이러한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다.

명당은 육지에만 있지 않다. 바다에도 있다.

제주도의 부자가 고기잡이 갔다가 태풍을 만나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살아남는다. 아들은 서울에서 동냥하며 살다가 청나라를 왕래하는 진상선의 선원이 된다. 우연히 청나라로 팔려가는 처녀와 관계를 맺었는데 공교롭게 그 처녀는 왕후가 되어 왕자를 낳았다. 그 아이가 청나라 황제가 된다.<sup>20)</sup>

이는 바다에 빠져 죽은 아버지가 명당에 안장되었기 때문에 그 손자가 청나라 황제가 되었다는 것으로 그 영향이 부계혈통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그 명당은 “백두산으로, 구월산으로 금강산으로 지리산으로 추자도로 해서 맥이 흘러 들어와서 용의 머리 부분이 태풍이 이는 바다 아래에 멈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용머리 위에 배가 온 때 그만 바람이 불어서 배가 침몰하면서 ‘아버지는 그 용맥에 가서 가라앉게 된 것’이다.”

조상의 영향이 현손까지 미치고 있음은 부계혈통을 중시하는 관념의 표현이라 하겠다. 이처럼 명당의 중요성이 강조되니 자연 명당을 빼앗으려는 일이 벌어진다.

용왕의 막내딸이 바닷가에 놀러 나왔다가 바늘땀시로 고기를 잡는 김씨 노인에게 붙잡혀 관계를 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은 용왕 곧 외할아버지에게서 물의 부친이 나이가 들고 투맥을 막지 못함을 듣고 지상으로 나와 아버지를 만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난 후, 투장을 막고, 용궁에 가 살면서도 조상의 뫼자리를 지켰다고 한다.<sup>21)</sup>

이는 투장 풍습을 보여주며, 그와 동시에 집안에 힘이 있어야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투장은 명당에 몰래 매장하는 풍습을 말하는데, 몰래 매장한다는 성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9-2, pp.257-260.

20) 김영돈외, “제주 사람이 청나라 황제가 됐던 사연”, 앞의 책, pp.830-834.

21) 김영돈외, “용왕황제국 말재말애기”, 앞의 책, pp.844-849.

격 때문에 용왕의 손자같은 존재라야 그러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설화는 점차 풍수설화가 민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의로 풍수는 교육적 효과도 지니고 있다.

선조의 묘를 쓴 후 손주 대에 태어난 오별장은 쌍동공의 인물로 산운을 탄 양반이다. 오별장 선조의 묘를 쓰면서 '저 오름만큼 한 자손이 나거든 저 산을 이묘하라'고 했는데 현재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묘를 하지 않았는데 망했다<sup>22)</sup>

이 설화 역시 그 영향은 손주 대에 미치고 있다. 오름만큼 한 자손 곧 쌍동공의 인물인 오별장이 태어났으니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묘를 하라는 지관의 말을 듣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바라다가 오히려 망했다는 점은 풍수를 통한 교육적 효과라 하겠다.

또한 산터는 능력에 맞게 써야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도 있다.

강훈장은 고전적 다음일 정도로 풍수지리에 밝았다. 하지만 부인이 죽었는데도 산터를 보지 않았다. 아들이 부탁하고, 며느리가 닭 1마리를 대접하자 그에 맞게 산터를 봐 주었다. 하지만 별로 맘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은 소를 잡아 먹일 터이니 다시 산터를 봐 달라고 했으나 '하늘의 천점인데 그것밖에는 안 된다. 너희들 성의가 부족하여서 어찌 할 수가 없다'<sup>23)</sup>고 한다.

이 설화에서는 남편인 강훈장이 아내의 산터를 보면서도 자식들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닭 1마리를 대접하자 어머니의 산터를 보는데 고작 닭 1마리를 바치는 성의밖에 드러내지 못하기에 그만한 결과가 예상되는 산터를 잡아준 것이다. 아내가 죽었지만 지관으로서 하는 일은 남편으로서의 직무보다 우선하고 있다. 자식들이 정성을 모아 대접을 하고서야 묘자리를 정하는 것으로 보아 지관의 일은 신성한 것으로 아무에게나 신의 뜻을 베푸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무가에서 작은 곳하면 작은 밭 사고, 큰 곳하면 큰 밭 산다고 말하듯이 어느 정도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 그에 맞게 자신의 복이 들어온다는 관념의 표현이라 하겠다.

22) 김영돈외, "오별장", 앞의 책, pp.639-643.

23) 김영돈외, "강태종 훈장", 앞의 책, pp.607-618.

#### 4. 설화 속의 세계 인식

설화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공동작이다. 따라서 이 설화 속에는 민중의 의식이 함축되어 있다. 풍수설화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누울자리로 인식하는 음택을 선정하는 설화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곳은 양택이요, 죽은 사람이 눕는 곳은 음택이다. 따라서 양택에 대한 사고는 그 사람이 죽은 후인 음택에 대한 사고에 반영이 되었다.

고대인들의 무덤을 살펴보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생활하는 것처럼 방을 꾸미고, 물건을 집을 수 있게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에 그 물건을 놓는 등 일정한 법칙에 따라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sup>24)</sup>

이러한 사자에 대한 사고 즉, 시간적 공간적 관념은 상례라는 제의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소 생활에서도 그러한 관념은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제주민들의 상례풍습을 통해 시간인식을 살펴보자.

상례의 의례절차를 구분하면 분리의례, 과도의례, 가입의례로 나누어진다.<sup>25)</sup>

분리의례는 만 60세가 되는 해에 치러지는 환갑잔치를 치름으로써 시작된다. 환갑잔치를 치르고 나면 마을에서는 노인으로 취급하고, 마을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 시 웃어른으로 대우받는다. 마을의 구성원이 담당하게 되는 의무도 환갑잔치를 치르고 난 후부터는 면제된다. 임종을 하고 염습을 한 후 입관을 하면 분리의례는 끝이 난다.

과도의례는 성복제를 치름으로써 시작된다. 상주는 상복으로 갈아입고 단헌단작으로 성복제를 치르는데 이는 상주의 인격전환을 의미한다. 망인은 죽은 자의 영역으로 가입하기 위한 전이단계에 속하고, 그 영혼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여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상주는 망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친지들도 상주를 통해 서러야만 망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일포제에서 드러난다. 일포제는 망인이 이승과 이별하게 되는 마지막 神人共食 의례이며 이를 거쳐 하관함으로써 이승과는 완전한 이별이 이루어지고 대상을 치름으로써 죽음이 완

24) 大林太良, 「葬制の起源」, 角川書店, 昭和52, pp.107-108.

25) A. 반 계넙, 전경수 역, 「통과의례」, 제2판, 을유문화사, 1994.

성되어 저승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의식은 상례절차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귀양풀이<sup>26)</sup>와 시왕맞이<sup>27)</sup>라는 망인을 위한 무속의례에서도 그 의미를 엿볼 수 있다.

가입의례는 대상 후 치르는 첫 제사인 담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때부터는 완전히 조상으로 인정되어 모든 것을 생자가 아닌 사자로 취급한다.<sup>28)</sup> 이 과정은 4대 봉사까지 이루어지다가 지제를 하면서 해마다 일정한 날에 모셔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sup>29)</sup>

이처럼 분리, 과도, 가입이라는 시간인식 관념은 출생의례, 성인식인 관례, 혼례 등에서도 같이 나타난다.

아이가 출생하는 것은 삼승할망이라는 산신이 잉태를 주고 해산을 시켜준 것이 라 여기고 있다. 삼승할망이 생불꽃을 들고 다니며 잉태를 주고, 어머니 배 속에서 10달을 채워 출생을 하게 된다. 이는 인간으로 탄생이지만 바로 명명되지 않고, 개똥이 딸똥이 하듯이 본명을 주지 않는다. 이는 아이의 생명이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 하지만 이 역시 차사본풀이가 설명하듯이 저승차사가 이승에 와서 생인을 잡아가려 해도 본명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차사를 속여 장수토록 하고자 하는 부모의 바람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소망이 깃든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한 준비과정은 엄마의 정성으로 나타나고, 인간으로의 출생 후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 과정이 지나면 관례를 치름으로써 성인으로 대접받고 혼례식을 치름으로써 가정을 꾸리게 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분리, 과도, 가입의 과정이라는 시간의식은 상례에서처럼 모든 삶의 방식에도 똑 같이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제주민의 삶의 방식 속에서 시간인식 관념을 찾을 수 있듯이 공간인식 관념도 구분해 볼 수 있다.

사람이 사는 현실계는 이승이요, 죽어서 가는 곳이 저승이다. 이곳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아 타계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곳이 천상계이거나 지하계이거나 해

26) 사람이 죽어 장사를 지낸 날 밤에 심방을 불러다가 죽은 영혼을 저승에 잘 보내는 곳.

27) 명부의 시왕을 맞아들여 기원하는 의례.

28) 사람은 죽어도 담제 이전까지는 국과 밥의 위치를 생인이 먹는 방식대로 두지만, 담제 부터는 생인의 방식과는 반대이다.

29) 현승환, "제주도 상·제례의 절차와 신앙적 의미", 『탐라문화』 제17호, 제주대학교 탐라 문화연구소, 1997, pp.171-191.

##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양계 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 살아오는 동안 전승민들이 느낀 세계관에 대한 해석이다.

하늘과 땅이라는 2분법적 세계관이 바다를 접하면서 이승 이외에 해양타계를 생성시킨 것이다. 인간은 현실계에서 살다가 죽으면 돌아가는 곳이 저승 곧 타계이다. 그 타계는 현실에서 인간이 사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똑 같이 살 수 있게 된 곳으로 여겼다. 고대인의 묘를 발굴하고 묘 안의 세계가 인간이 사는 집과 같은 관념의 반영이라는 점은 망인이 머물고 있는 묘가 생인이 생활하는 거주처와 같은 곳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제주의 묘는 시신을 땅에 매장하고 원형으로 무덤을 만들고 난 후 용미라고 하는 꼬리부분을 따로 만든다. 이는 경주의 왕릉과 다른 독특한 방식이다. 먼저 원형 무덤을 만들거나 가매장을 한다. 원형무덤만으로는 완전한 무덤이 되지 않는다. 원형무덤을 만들고 난 후 망인의 가족들은 택일을 하여 용미를 빼는 절차를 행한다. 이는 무덤의 머리 방향에 꼬리 모양으로 흙을 덮어 마치 산맥의 흐름처럼 만든다. 이렇게 해야 완전한 무덤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미를 빼지 않으면 가매장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원형무덤 형태의 가매장에 용미를 빼는 절차가 가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장례가 두 번 행해지면 복장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복장은 사자와 생자와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는가에 따른 태도의 표현으로 매장된 사체를 파내어 뼈를 씻고 장례식을 행하여 다시 뼈를 매장하는 것이다.<sup>30)</sup> 이러한 복장은 우르스라 슈렌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장법이 접촉하고 혼합될 때에 생긴다고 한다. 台上葬+매장, 화장+매장, 혹은 매장+주장(舟葬)같이 1차장과 2차장이 다른 경우가 자주 보이고, 매장+매장같은 경우도 보이는데 이때는 계보가 다른 매장과 매장이 접촉결합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복장은 장기간 정착생활을 전제로 한다.<sup>31)</sup> 베트남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변화의 한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을 하고 3년 후에 해골을 파내어 새롭게 최종적인 매장을 한다. 아이가 태어나도 처음에는 본명이 없고, 가족의 일원이 되지 않는다. 결혼의 경우도, 처음에 약혼식을 하면 신부는 친정의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면해진다. 그러나 신부가 곧 남편의 집에 소속되는

30) 대립태랑, 앞의 책, p.97.

31) 대립태랑, 앞의 책, pp.95-96.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 선조의 제단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야 남편 가족의 일원이 된다. 출생, 결혼, 사망 등이 완료되는 데는 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sup>32)</sup>

이렇게 보면 제주도과 베트남은 유사한 면이 있다. 하지만 복장이라 할 수 있는 분명한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가매장을 하고 용미를 뱀으로써 죽음이 완성되는 것으로 2단계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만이 드러난다.

따라서 장제 방식의 결합은 아닐지라도 가매장을 하는 원형 무덤으로 나타나는 장제문화와 용미를 뱀 문화의 결합은 아닐까. 신라 왕릉들이 원형을 이루고 있는 점은 한반도에 원형무덤 문화가 있었다고 보아진다. 용미는 바로 이러한 원형 무덤 문화에 덧붙여진 것일 것이다.

그럴 경우 용미는 어떤 성격의 문화일까. 그것은 바로 풍수지리에 따른 문화요소일 가능성이 있다.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산을 용이라 하고 산줄기를 龍節 혹은 래백이라 한다.<sup>33)</sup> 또한 사신도가 고대 중국인의 천문사상의 영향인 것이며 후에 풍수의 혈처, 사방의 산세에 빙의된 것으로 보는 견해<sup>34)</sup>가 있는 것 등을 참조하면 기존의 원형무덤에 풍수사상의 영향으로 용미가 덧붙여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용미는 산의 맥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무덤을 산이라 칭하는데 이것 역시 산의 맥을 잇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제주도에서 산은 신이 깃들어 있는 곳을 가리킨다. 한라산, 청산, 영주산, 산방산, 두력산 등을 5대산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들 이외에는 오름이다.<sup>35)</sup> 따라서 사람을 매장한 곳을 산이라 하는 것은 5대산을 칭하듯이 신이 깃든 신성한 곳이라는 관념의 표현이다. 이것은 신을 지칭하면서도 오름신, 악신 등이 아니라 산신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 산은 오름, 봉, 악과는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풍수에 따르면 용은 원래 조산(祖山)이라 부르는 명산에서부터 시신을 누일 자리인 혈장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일컫는 말이나 중국의 곤륜산이나 우리나라의 백두산 등 조산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명당을 둘러싸고 있는 적

32) 대립태양, 앞의 책, p.102.

33) 『人子須知』(徐善繼, 善述 형제 著)에 산맥의 형상이 용이 꿈틀거리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산을 용이라 했다. 맥이란 용 속에 감추어진 정기를 이룸인데, 용은 외적이고, 맥은 내적인 것으로 보았다.

34)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35)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p.20.

##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당한 범위 내에 있는 산만이 상점(相占)의 대상이 된다.<sup>36)</sup> 따라서 용미는 매장한 조상의 머리를 통해 지기의 맥을 이어받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현실에 재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오랜 매장 풍습에 풍수지리설을 받아들여 용미를 덧붙여 조상의 자손에 대한 영향이 부여됨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자손들은 조상숭배를 위한 제사, 장례의식 등을 통해 조상과의 혈연관계를 재인식한다. 이는 별초민속, 산담민속과 같은 형태로 남아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5. 결 론

풍수설화는 양택과 음택으로 나뉜다. 이 중 음택설화를 중심으로 전승자들의 의식을 추출해 보았다. 음택설화는 지관과 상주사이에서 돌아가신 망인을 어디에 매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타난 것이었다.

전승민들의 지관에 대한 사고는 사제자에 대한 사고와 같은 것이었다. 사람이 죽고 그 영혼이 저승으로 잘 가도록 의례를 담당하는 자가 심방이듯이 지관은 죽은 육신이 명당에 묻혀 지맥의 영향이 후손들에게 잘 미치도록 하는 담당자였다. 이러한 관념은 무속적 관념이 풍수설화에 적용된 결과이다.

풍수관념이 설화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핀 결과, 그것은 사람이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동일하다는 고대인들의 영생불사 사상에서 출발되었다. 살아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식이 복을 누리듯이 죽어서도 그 영향은 동일하게 미친다 여기고 있다. 따라서 자손은 죽은 조상에 대해 제사지내며 명복을 비는 것이다. 제사를 정성껏 지내야 복을 받는다는 관념은 풍수에서 명당에 묻힌 조상의 영향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한 영향은 4대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더구나 이러한 제사는 부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부계혈통을 강화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의례 속에서 나타나는 분리, 과도, 가입이라는 시간인식은 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풍수설화는 분리의 영역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 무덤은 원형

36) 신월균, 「풍수설화」, 밀알, 1994, pp.20-23.

무덤에 용미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죽음이 완성된다. 이는 복장과 유사한 두 개의 문화의 복합을 의미한다.

풍수설화를 민속 현상과의 관련 속에서 전승민들의 인식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제주도에 한정지음으로써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따른다. 양택설화와 풍수 영향인 단맥전설까지 논의하여야 이 글의 타당성이 밝혀질 것이다.